

새로운 삶, 그리고 세 번의 후원



정근철 (주)조은생약 대표는 2017년 북부 대동맥류 파열로 큰 위기를 겪은 후 서울아산병원에 세 차례 후원을 했다.

‘저 다리를 다시 차를 운전해서 건널 수 있을까’ 정근철 (주)조은생약 대표는 서울아산병원 창밖에 보이는 올림픽대교를 보며 이런 생각을 거듭했다. 북부 대동맥류 파열로 심정지까지 겪고 2주 만에 혼수상태에서 깨어난 그에게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간다는 것은 꿈만 같은 이야기였다. 하지만 7년이 지난 지금 정근철 대표는 건강한 모습으로 일상을 누리고 있다. 그는 ‘서울아산병원의 뛰어난 의료기술과 헌신적인 치료 덕분’이라며 세 차례에 걸친 후원으로 거듭 감사의 마음을 표시했다.

혈혈단신 청년에서
한약재 전문 기업인으로

정근철 대표는 혈혈단신으로 서울에 올라와 한약재 관련 일을 시작했다. 먹고 살기 위해 시작한 것이었지만 ‘한약 장사를 하려면 한약을 제대로 알고 해야 한다’며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하며 30대에 한약재료 수입회사를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이전에는 사향, 우황, 녹용 등 주요 한약재가 생산되는 러시아와 직접 무역이 불가능해 싱가포르와 홍콩을 경유했지만, 1990년 우리나라가 러시아와 정식 수교를 맺으며 무역이 가능해졌다.

“그때 당시에 바터(Barter) 무역이라고 해서 물물교환을 했습니다. 러시아에서 한약재를 실어오고 TV나 전자렌지 같은 가전제품을 보냈지요. 국가코드도 없어서 전화는 못 쓰고 텔

렉스라는 전신장치만 쓸 수 있어서 거래 자체가 쉽지 않았지요. 처음에 대형 비행기로 거래를 했는데, 러시아 국기를 단 비행기가 녹용을 잔뜩 싣고 온다니까 안기부에서 부르더군요. 당시 녹용은 사치품이었거든요. 계약서를 보여주며 가전 제품을 왜 보내는지를 일일이 다 설명하고 허락을 받고서야 거래를 할 수 있었지요.”

한약재의 성질을 빠르게 알고 믿을 수 있는 약재만 거래하는 원칙은 회사 성장의 원동력이 됐다. (주)조은생약은 국내 우황, 사향의 80%를 공급하는 회사로 성장해 광동제약, 경희대병원, 길병원 등에 한약재를 공급했다. 사육을 짓고 아들이 경영에 합류하며 회사는 더욱 탄탄해졌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만큼 안정적이던 때에 정근철 대표의 몸에는 조용히 위험신호가 나타나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소화가 되지 않는 불편함 정도였다. 그냥 나이 탓이라고 가볍게 넘겼다. 배에 손을 대면 통통 튀는 느낌이 있었는데 ‘동맥이 지나가서 그렇다’고 하니 원래 그런 줄만 알았다. 병원에 가야 할 일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새 삶을 얻은 감사의 마음으로 후원을 결심하다

2017년 가을 어느 날, 정근철 대표는 점심 무렵부터 체한 것처럼 속이 답답하고 불편했다. 저녁이 가까워올수록 점점 나빠져 운전을 하지 못할 것 같았다.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향하던 중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들에게 전화하고 서울아산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간신히 응급실에 도착한 그는 바로 의식을 잃었다. 깨어나보니 중환자실이었고, 이미 2주가 지난 시점이었다.

“수술 전에 심정지 상태가 두 번이나 와서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거라고 하더군요. 응급수술을 한 교수님이 ‘조상님이 덕을 많이 쌓았던가 본인이 덕을 많이 쌓았나보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했더니 해당 교수님이 수술을 마친 직후에 제가 들어와서 바로 수술이 가능했다고 해요.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러시아에서 수입한 사슴뿔을 살피보는 정근철 대표.

정근철 대표는 수술과 치료를 담당한 주치의뿐만 아니라 자신을 담당했던 간호사들을 지금도 기억한다. 중환자실에서 아프고 힘들어 짜증을 낼 때도 정성스레 가래를 제거해 준 중환자실 간호사, 처음 환자를 담당했는데도 불편한 내색 하나 없이 장무를 비워주고 간호해준 젊은 신입 간호사다. “환자이긴 했지만 짜증을 내고 힘들게 한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늘 있었어요. 특히 젊은 간호사는 제가 첫 환자인데다가 가족도 하기 힘든 일을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진료차 병원에 갔다가 두 사람을 만날 기회가 생겼어요. ‘나 기억하냐’고 했더니 다행히 기억하더군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고생 많았다고 사과를 했지요.”

정근철 대표는 퇴원 직후 서울아산병원에 후원을 했다. 그리고 2019년과 올해 3월 또 다시 후원을 했다. 세 번이나 후원을 한 이유는 ‘고마웠던 일을 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였다. “흔히 화장실 갔다 오면 마음이 변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새로운 삶을 얻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 그때 애써주신 의료진 덕분이니 그걸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마지막으로 정근철 대표는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의료진이 힘든 걸 정말 많이 봐서 무엇이든 돕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후원을 이어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 글 편집부